

## □ 청통면

### \*계지리

망지리(望芝里)는 약 500년전에 이현중(李玄重)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했다 하며 그후 이현필(李玄弼)이라는 선비가 봉화산(烽火山)을 바라본다는 뜻에서 망지리(望芝里)라 했다. 무연골(舞燕谷)은 양무생(楊武生)이라는 선비가 약 300여년전에 이 마을을 개척했다 한다, 넓은문은 지금부터 100여년전까지 만해도 신령에서 넘어오는 곳에 암석(岩石)으로된 넓은 문이 있어 일명 판문(板門)이라고도 했으나 지금은 말만 전하지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강변(江邊)은 청통면에 마을이 새로 생겼기에 생긴 이름이며, 뒷골 또는 後谷, 혹은 城里이라고 하는 마을은 望芝里 뒤쪽에 있다 해서 붙인 이름이며 모두 예부터 人類가 정착했던 곳이다.

### \*계포리

대재(大才)는 조선 성종때 유명한 윤죽재(尹竹齋)의 출생지이기에 대재(大才)가 출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대포(大浦)는 수원이 풍부한 곳이고 하계(下桂)는 마을 뒤에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계 지대재(下桂 芝大才), 대포(大浦)로 되었다. 성종원년이 1470년이며 이 당시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다.

### \*대평리

대평(大平)은 약500여년전에 지덕상(池德相)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처음 개척하였는데 당시에 금호평야를 내다보니 한눈에 바다같이 평평하게 보인다고하여 평촌(平村)이라 칭하였으며, 또 150년전에 박일제(朴逸堤) 선생께서 사일지를 크게 증축하여 물이 충만하고 보니 바다와 같이 수평을 이루므로 大平이라 개칭하였다. 대정동은 밀양 박씨 13대손 박일제(朴日堤)선생께서 지은 대은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으며 마을 뒤에는 대정골이 있다. 대정(大亭)과 평촌(平村)이 합해서 되었다.

### \*보성리

최우현(崔佑鉉)이라는 선비가 봉수동을 처음 개척했으며, 목성(木城)은 각종 수림이 울창하였으며, 또 주위의 산들이 성처럼 쌓여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꺾조골은 이상하게도 꺾덕구라는 물고기가 많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14년 보목(甫木)의 "甫"자와 대성(大城)의 "城"자를 따서 보성리라 한다.

### \*송천리

덕산(德山)은 월성리(月城里)에서 강을 건너 높은 언덕에 위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松川은 제일 먼저 터를 잡았다고 하며 옛날에 많았던 소나무의 "松" 자와 흐르는 내의 "川" 자를 합해 지은 이름이라 하며, 월성리(月城里)는 최일만(崔日萬)이라는 선비가 약 200년전에 이 마을을 개척했다 한다. 개척당시 마을 지리인 능성(菱城)이 반월(半月)과 같다 해서 월성리라 했다한다. 송천, 덕성, 월성의 3개의 마을이 합해서 된 마을이다.

### \*신덕리

덕리(德里)는 장영한(張永翰)이라는 선비가 약300년전에 마을을 개척했으며 서당마을과 두 자연부락으로 되어있다. 1914년 행정구역변경시 신덕이라 개칭한다. 새터는 옛날은 동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당촌(書堂村)은 옛날에는 마을이 번창하여

書堂이 있었으며 지금은 사일초등학교가 있다. 성리(城里)는 약 150여년전에 한후영(韓厚榮)이라는 선비가 신덕(新德)이라 개칭하였고, 학리(鶴里)는 땅모양이 학모양이며 날개부분에 집을 지으면 지탱치 못한다하여 등부분에 집이 있다. 꼬리 부분에 2개의 바위가 있는데 학구(鶴邱)라 전한다.

#### \* 신원리

덕리(德里)는 장영한(張永翰)이라는 선비가 약300년전에 마을을 개척했으며 서당마을과 두 자연부락으로 되어있다. 1914년 행정구역변경시 신덕이라 개칭한다. 새터는 옛날은 동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당촌(書堂村)은 옛날에는 마을이 번창하여 書堂이 있었으며 지금은 사일초등학교가 있다. 성리(城里)는 약 150여년전에 한후영(韓厚榮)이라는 선비가 신덕(新德)이라 개칭하였고, 학리(鶴里)는 땅모양이 학모양이며 날개부분에 집을 지으면 지탱치 못한다하여 등부분에 집이 있다. 꼬리 부분에 2개의 바위가 있는데 학구(鶴邱)라 전한다.신촌(新村)은 고려시대에 앞산 밑에 고정사(高亭寺)라는 절이 있었다고하여 고정골(高亭谷)이라 했으며 약 300여년전 숙종때 김성응(金聲應)이라는 선비가 피난와 바로 지금의 신촌에 정착했다 한다. 학산은 옛날에 이 마을 앞산에 학이 많이 살았다고 전해오고 있다. 학이 마을에 많이 오면 마을은 자연히 길한 일이 많다하여 풍년이 들고 학처럼 마을 사람들이 장수하게 된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이 곳이름을 학산(鶴山)이라 했다한다. 신촌(新村)과 학산(鶴山)이 합한 리이다.

#### \* 애련리

봉계는 약 300여년전에 崔齊學이라는 선비가 개척하였으며 이곳에서 북으로 약 1km 지점에 봉루암(鳳樓庵) 암자가 있었기에 봉계(鳳溪)라 했다하며, 천골(泉谷)은 마을 앞 약 500m지점에 샘이 하나 있는데 칠년 대한(大旱)에도 마르지 않는다 하며, 죽골(竹谷) 또는 죽계(竹溪)는 대나무숲을 베고 마을을 개척했다 하며, 이곳에서 난 사내아이는 절개가 대와 같다 한다. 삼괴(三槐)는 매화나무가 3本있었으나 지금은 1本만 남아 있으며 울정(栗亭)은 굵은 밤알이 난다고 전하며, 재애동 또는 와골(瓦谷)은 단양 전씨(丹陽 全氏)가 살고 있었으며 기와굽는 굴이 있었다고 전한다. 삼괴(三槐), 죽계(竹溪), 봉계(鳳溪)로 된 마을이다.

#### \* 용천리

용내, 용호, 용천은 1592년 임진왜란시 조정헌이란 선비가 개척했으며, 이 마을에서 용이 한마리 승천하였다고 하며, 부용(夫龍)은 1598년경 최명해라는 사람의 씨족(氏族) 3집이 농사를 크게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들은 용 가운데서 지아비용(夫龍)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전한다.

#### \* 우천리

구신기는 와우형(臥牛形)의 산밑에 이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원래 이 마을이 있었는데 주민이 모두 나가고 폐동(廢洞)되었다가 다시 이 곳에 들어와 살았는 데서 구신기라 부르기도 한다. 또는 옛날에 이 곳에 담양 전씨(潭陽 全氏)들의 선계사족계자(鮮溪詞即溪字)는 "川"을 가운데 넣고 앞산의 모습이 와우형(臥牛形)이라 우자(牛字)를 합해서 우천(牛川)이라 했다 한다. 우리 말로는 "소내"이다. 소내는 어부(魚浮), 하우(下牛), 월평(月坪), 상평(上坪), 용연리(龍淵里)의 일부가 합하여 된 마을이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시 영천군 청통면에 속하게 되었다.

#### \* 원촌리

구신기는 와우형(臥牛形)의 산밑에 이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원래 이

마을이 있었는데 주민이 모두 나가고 폐동(廢洞)되었다가 다시 이 곳에 들어와 살았는데 구신기라 부르기도 한다. 또는 옛날에 이 곳에 담양 전씨(潭陽 全氏)들의 선계사즉계자(薛溪詞卽溪字)는 "川"을 가운데 넣고 앞산의 모습이 와우형(臥牛形)이라 우자(牛字)를 합해서 우천(牛川)이라 했다 한다. 우리 말로는 "소내"이다. 소내는 어부(魚浮), 하우(下牛), 월평(月坪), 상평(上坪), 용연리(龍淵里)의 일부가 합하여 된 마을이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시 영천군 청통면에 속하게 되었다. 원촌(院村)은 이름은 송곡서원(松谷書院)이 있었기에 생긴이름이다. 태재 류방선(泰齋 柳方善)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선생은 집현전 학사로 임명되어 세종대왕과 서로 질의로서 왕복하고 스승의 예우로서 대우하게 되니 선비의 영예스러운 일이었다. 사계(四桂)같은 문학의 영수와, 단종때 세조의 왕위찬탈을 반대하다가 금성대군과 함께 처형당하여 순절하신 대전 이보흠 같은 분을 문하생으로 두고 있었다. 1702년에 폐비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다가 대원군께 휘철되고 광복17년 애련리로 복원하였다. 회룡(回龍) 또는 창리(倉里)는 500여년전에 강옥진이라는 선비가 개척하였다 하며 개척 당시 강의 줄기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모양이기에 회룡(回龍)이라 했으며, 창리(倉里)란 이름은 조선시대에 곳곳에 곡물 창고가 있었는데 이 곳에 창고가 있었다고 전해오며, 이설로서는 임진왜란(1592)에 최용준이라는 분의 집 뒤에 병기고가 있었다고 전한다.

#### \* 치일리

지곡은 청주 한씨(淸州 韓氏)의 선조가 약 300여년전에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당시 잔디 언덕을 개간하여 밭을 일구었다한다. 부흥리는 약 150여년전에 차영수(車永守)라는 선비가 개척했다 한다. 부흥리(夫興里), 지곡리(智谷里), 학곡리(鶴谷里)가 합하여 치일리가 되었다.

#### \* 호당리

호령은 약 500여년전에 전유형(全有亨)이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했으며 뒷산의 모습이 범모양이기에 호령(虎嶺)이라 했으며 이후 150여년전에 김영곤(金永坤)이라는 선비가 호당(虎堂)이라고 개명했다 한다. 신당(新堂)은 김정수(金丁洙)라는 선비가 개척했으며, 배병래(輩兵來)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선비나 병사들이 쉬어가는 집이 있다 하여 배병래라 했다한다.